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해 2023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향도 따라 류레없이 간고한 2022년을 백절불굴의 투쟁과 전진으로 궁지 높히 결속하고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 새해를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 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체112(2023)년 새해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의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한평생을 다 바치시어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고 강대한 당과 국가, 인민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실행을 위해 당과 인민이 부

에 즈음하여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

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가장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

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여한 무거운 책무를 다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실질적이며 비

약적인 변화발전을 반드시 성취할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시기자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체112(2023)년 새해의 첫날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의 대회합을 당과 국가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의 관심과 축복속에 성대히 진행하도록 한량없는 은정을 거듭 베풀어 주신 아버지원수님을 희망넘친 설날에 만나뵙고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학생소년들의 가슴

가슴은 무한한 행복감으로 세차게 높

뛰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원수님께서 활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소년단원들을 억만금의 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여기시며 뜨거운 열과 정을 다해 훌륭히 키워주시는 원수님을 격정속에 우러르며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아버지원수님께 소년단대표들이 붉은 벚타이를 매어드리고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다함없는 고마움과 새해축원의

인사를 담아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삼가 올리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 하시며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를 통하여 주체적소년운동의 빛나는 력사와 전통, 혁명의 붉은 피줄기를 곳곳이 이어가시는 조선소년들의 활기찬 기상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고 새해를 뜻깊게 맞이한 소년단대표들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조국번영의 새로운 한해를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찬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것은 미래

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

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힘이고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의 훌륭한 교대자인 300만 소년단원들이 있기에 주체위업의 전도와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무궁창창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이 부디 모두 건강하여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지덕체를 갖춘 유능한 인재로 더욱 씩씩하게 성장해줄것을 바라시면서 참가자들을 사랑의 한뼘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육친의 정을 또다시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러 감격과 환희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원수님께서서는 오래도록 대표들을 향해 손저어주시며 전체 소년단원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무상의 행복을 받아안은 소년단대표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강국건설의 역군들로 항상 준비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시기자

2023년 - 승리의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조선

중지 않고 보람찬 승리의 2022년을 보내고 공화국인민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 2023년의 진군 길에 나섰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이 되는 력사적인 해인 동시에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여야 할 올해의 투쟁과정에서 공화국인민은 또 얼마나 활기찬 전진과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게 될것인가.

승리의 해에서 더 큰 승리의 해에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공화국은 이해의 려정에서도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바로 이것이 공화국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철의 신념이며 의지이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가리킨 2023년의 새로운 진군로에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첫 자욱을 크게 뻗 주체조선의 약동하는 숨결이고 전진기상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전원회의에서 새롭게 밝혀주신 발전지침을 구절구절 새기며 더 큰 행복을 누릴 휘황찬란한 데일에 대한 드높은 신심과 2023년에 또 한걸음 크게 내짚어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열어나갈 열의에 넘쳐있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공화국인민의 모습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대회이후 지난 2년간 공화국이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난과 도전을 완강히 이겨내며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전진시켜온 발전행로를 개괄하시었다. 그리고 간고한 행진에서 쟁취한 성과와 함께 최근 조성된 대내외적환경의 특수성을 깊이 파악하고 앞으로의 국가사업발전방향을 명확히 한것, 이것이 2022년의 시련의 투쟁을 통해 얻은 교훈한 경험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원회의 보고에서 류례없이 간고하고 격렬했던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공화국의 국력이 강화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전원회의가 제시한 방대한 과업실현에서 성과와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각 방면에서 2023년도에 달성하여야 할 중점목표들과 실행방도를 밝혀주시었다.

또한 시대가 변천하는데 맞게 인민대중의 사상문화, 생활문화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고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문제, 대중운동, 사회주의적행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진도약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는 모습과 방략을 밝혀주시었다.

이렇게 희망찬 새해의 첫걸음,

용기충찬한 주체조선의 첫걸음은 지난해의 마지막날에 벌써 시작되었다. 새년도 국가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력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원수님의 심원한 사색의 세계와 함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제시된 위대한 실천강령과 더불어 주체조선의 새해 2023년이 찬연히 밝아온것 아니던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백전백승한다!

이것은 지난해 공화국의 려정에 관통된 승리의 진리이고 또다시 전진하고 비약해야 할 새해의 려정에서 이 나라 인민들이 더욱 높이 추켜든 불변의 표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결심하시면 무조건, 반드시 된다는것, 그이의 탁월한 령도를 일편단심 따르는 길에 세세년년 누려갈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행복이 있다는것은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강인히 이겨내며 공화국인민이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은 진리이다.

공화국인민이 헤쳐온 2년간의 나날을 더듬어보아도 이것을 명백히 확인할수 있다.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도전과 난관은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었다. 그것은 실로 사상초유라는 말로써만 표현할수 있는것이었던 만 공화국인민은 결연불발의 완강한 노력으로 2021년과 2022년을 사회주의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었다. 이 과정에 이룩된 경험들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으며 전대미문의 난관속에서

도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반드시 쟁취할수 있는 만만한 자신심을 배배해주었다.

이 모든 기적과 변혁, 승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도, 고매한 덕망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류례없이 준엄하고 혹독한 난국들이 겹쳐진 지나는 해들에 불철주야의 사색과 로고를 바치시어 나라와 인민이 나아가갈 앞길을 밝혀주는 대강들을 제시하시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행시키는데서 나서는 위대한 실천강령이 명시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당대회결정사항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진 첫해의 계획수립에서 전환적계기 추켜든 불변의 표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결심하시면 무조건, 반드시 된다는것, 그이의 탁월한 령도를 일편단심 따르는 길에 세세년년 누려갈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행복이 있다는것은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강인히 이겨내며 공화국인민이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은 진리이다.

공화국인민이 헤쳐온 2년간의 나날을 더듬어보아도 이것을 명백히 확인할수 있다.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도전과 난관은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었다. 그것은 실로 사상초유라는 말로써만 표현할수 있는것이었던 만 공화국인민은 결연불발의 완강한 노력으로 2021년과 2022년을 사회주의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었다. 이 과정에 이룩된 경험들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으며 전대미문의 난관속에서

추진할수 있었다.

진정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으로 당사업과 군력강화,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승리의 활로를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지금도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면 누구나 감격에 겨워 잊지 못한다.

인민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열광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위민헌신의 열두달을 쉬임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어려울수록 인민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따뜻이 품어주시는 그이의 열과 정에 의하여 가장 어려운 시기에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같은 거창한 건설대전이 힘있게 벌어졌다. 인민생활안정에 조급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위대한 아버지께서 친히 서명하신 사랑의 특별명령서가 발령되고 국가의 새로운 육아정책이 실시되어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었다.

지난해는 보건위기와 자연재해가 겹쳐지고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한 최대국난의 해였지만 철세위인의 령도따라 공화국인민은 최강의 절대적힘을 비축하여 최상의 국위와 국망을 떨치었으며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의 진군보폭을 더 크게 내짚었다.

이러한 속에 인민의 리상거리인 승화거리와 사회주의번화가인 보통강강안다락식주역구인 경부동역이 수도에 일떠서고 련포지구에 온실바다가 펼쳐졌으며 도처에 다양한 형식의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이 솟아났다. 또한 성능높은 트랙트르와 농기계들을 다양생산

할수 있는 기지인 금성트랙트르공장의 1단계 개건현대화가 진행되었고 기본공약지대인 황해남도의 전야에 농기계바다가 펼쳐졌으며 김화군에 전국의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적실체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섰다.

그뿐이 아니다.

전국의 학교들을 본보기학교수준으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첨단기술을 비롯하여 기술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교복과 가방, 신발, 갖가지 학습품들을 마련해주었다. 시, 군마다 현대적인 셋째물생산도장을 튼튼히 갖추어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셋째물과 영양식품을 정상적으로 먹이고있다.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육아법, 의약품들을 비롯하여 지난해에 새로 채택되었거나 수정보충된 부문법들을 보아도 공화국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다.

지난해에 이룩된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들이야말로 공화국의 절대적힘, 발전잠재력의 일대 시위로 된다.

그러나 공화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웅대한 구상을 펼치었다. 위대한 실천강령이 위대한 승리의 길을 활히 밝혀주었다.

불멸의 전투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용진 또 용진하는 공화국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새해 2023년의 려정을 더 큰 승리로 이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

몇해전 1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식당에 들리시어 육아원과 애육원들에 물고기와 고기, 남새, 과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떨구지 않고 보장해주는 체제를 그르치게 세워주었는데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관리를 위생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원아들의 모습을 정경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에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더 굳게 확신하게 된다고 하시었다.

원수님께서 자신은 반대이라고, 공연무대바다에 다른 나라들에서 한것처럼 정색을 칠하였는데 모래와 파도에 밀려나온것처럼 하면 조화가 더 잘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무엇을 하나 해도 우리의 미학적감정에 맞 퍼보시며 한 일군에게 저 사내가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는가고 물으시었다. 국제적기준에 부합된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우리 인민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원수님께서 자신은 반대이라고, 공연무대바다에 다른 나라들에서 한것처럼 정색을 칠하였는데 모래와 파도에 밀려나온것처럼 하면 조화가 더 잘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무엇을 하나 해도 우리의 미학적감정에 맞 퍼보시며 한 일군에게 저 사내가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는가고 물으시었다. 국제적기준에 부합된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한송이의 꽃이라도 상할세라

주제101(2012)년 9월 평양화초연구소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구사,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겠다고 하시었다. 너무도 감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던 연구사,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그이의 곁에 모여섰다. 이때 사진진도를 잡기 위해 바빠 움직이지 않던 화초연구사 종업원들도 크게 가책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세상에 둘도 없는 말

일심단결

일심단결이란 공화국에만 있는 특유의 말로서 한마음으로 굳게 뭉친다는 말이다.

단결이 민족을 통일변혁하게 한다면 사본오름은 민족을 망하게 한다. 민족의 통일변혁은 민족의 단결을 전제로 한다. 단결된 민족이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면서 승승장구할수 있다. 그러나 민족이 사본오름되면 통일적발전은 이룩할수 없을뿐 아니라 남에게 먹히워 그 존재자체마저 유지할수 없게 된다. 오늘 우리 민족의 궁지 가운데서도 가장 큰 궁지는 수령, 당, 인민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한 것이다.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라는데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특징이 있다. 공화국의 일심단결은 수령, 당,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된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단결이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데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다.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대가정이며 공화국인민은 일심단결의 내부대이다. 공화국인민은 사상도 하나이고 지향도 하나이며 운명도 하나이고 미래도 하나이다. 백만사람의 생각도 하나이고 천만사람의 걸음도 하나이다.

핵이 없는 물질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중심이 없는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일심단결의 중심은 탁월한 수령이다. 언제나 공화국을 방패처럼 지켜주는 한 인사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한 경험에 대하여 통속적이면서도 심오한 리치를 담아 이야기해

리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승리를 떨쳐가는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을 두고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몇해전 어느한 나라의 신문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전출위인인 김정은령도자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은 미중유의 힘과 기적으로 이 나라를 높이 떠들고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수호해나가는 령도자를 결사옹위하여 펼쳐나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조선을 불패의 초대국으로 떠받드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결정구조는 그 어떤 핵탄으로도 깨지 못한다. 조선이야말로 세계의 초점을 모는 진짜 초대국이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손지성

위민헌신의 길에서



저 하 늘 에

—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으며 —

불빛이 어지러이 명멸하는 도
표의 밤하늘, 그 하늘은 어둠에
잠겼었으나 지난 한해를 쉬임없이
달려온 우리 동포들의 마음속에
는 푸르른 하늘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지난해 우리 금강산가극단의
순회공연 《저 하늘에》의 열풍이
동포사는 일본 각지를 휩쓸
었습니다.

우리들이 무대에 올린 종목들
마다 너무나 감동되어 어깨춤을
들썩이던 동포들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르고 공연장들에 뜨겁게 굽
이치던 조국애와 민족애의 열기가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각에도 저의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지난해 11월 24일.
이날은 우리 순회공연이 최절
정을 이룬 파문의 날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진행된 공연을 총련일
군들과 동포들은 물론 일조문화
교류협회 리사장을 비롯한 일본인
사들과 《포탄》 동포들, 재미동포
들까지 포함하여 1 000여명이나
관람했습니다.

공연시작전부터 내외의 관심과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류현에서 첫 순회
공연의 막을 올린 후 오사카부,
후쿠오카, 아이치현, 나가노현...
이렇게 각지를 휩쓴 순회공연이
관람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기때문입니다.
도쿄에서의 공연은 노래와 무용
《내 나라의 푸른 하늘》로 시
작되었습니다.

민들레 꽃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아 철없이 바라본 푸른 저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어이 몰랐
던가
...

은은한 선물속에 울려 퍼지는
노래는 어느덧 동포들의 마음속
에 끝없는 그리움을 불러일으켰
습니다.

쿄로나재앙으로 3년간이나 조국
왕태가 중단되어 너무나 그립고
가고픈 어머니조국.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과 춤을
추는 무용수들은 물론 관람하는
동포들모두의 가슴속에 차넘친것
은 이 세상 누구도 호를수 없
는 푸른 하늘을 펼친 내 조국
에 대한 비결에 없는 자부심이
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 조국의 하늘
에는 사상초유라 할만한 검은구
름이 몇차례나 밀려들었습니다.
두말할것도 없이 제일먼저 밀
려든 구름은 전쟁의 검은구름이
었습니다.

미국과 추종무리들이 수많은
전투기들을 띄우고 조국의 하늘
을 위협한 지난해 11월 4일.

그날은 우리가 도쿄공연을 진행
하기 불과 20일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 조국을 삼켜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절정
에 달하였던 참으로 준엄한 시각
이었습니다.

그들이 벌여놓은 대규모연습공
중훈련, 사실상 전쟁의 문어구나
다름없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
에서 세계는 또다시 숨을 죽이고
조선의 하늘을 지켜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온몸을 후덕게 하여줍니다.
그렇수록 마음은 자꾸만 어머
니조국의 품으로 달려가며 그처
럼 극단한 환경속에서도 세계가
경탄하는 기적의 현실을 펼쳐시
고 우리 동포사회가 활력에 넘쳐
진진할수 있게 하여주시는 경애하
는 김정은원수님께 고마움의 큰절을
드리고싶은 심정을 억제할길 없
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새해
를 맞이한 저는 순회공연의 나날
에 느꼈던 2022년의 내 조국과
우리 총련에 대한 가슴부듯한 긍
지감을 피력하고자 미려한 붓을
들었습니다.

정의와 부정의, 힘과 힘이 최대
로 격돌한 이날의 치렬한 대결전
에서 승자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조국의 TV에서 유명방송원이
전하는 힘찬 보도가 파장을 타고
세계를 덮었습니다.

5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
한 대규모행동출동작전으로 적
들의 비행기들을 추종락엽처럼 흘
날려버리었다는 통쾌한 승전소식
이었습니다.

세계가 이 충격보도에 벅적 뿔
던 그때 일본의 언론들은 함구무
언이었습니다.

당시 한 일본인사는 《지난 10월
4일 조선이 일본상공에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는 보도가 나와 마치
나 아오모리현의 상공을 날아갔
다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심었다.
실제로는 상공 1 000km의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정부는 긴급경보를 발
령해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
다. 일본상공을 날아가고있는것
은 조선의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
의 전투기들이다. ...》라고 하였
습니다.

이런 일본언론이 11월 4일의 총
격사실에 입을 다물었다는것은
그자체가 우리 조국의 막강한 군
사적력에 대한 사실상의 인정이
아닐수 없다고 봅니다.

그 폐송의 소식에 접한 우리 동
포들은 기쁨도 컸지만 가슴을 치
는 충격에 눈시울을 적시지 않
을수 없었습니다.

끝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위험천만한 화전에서 직접 작전
을 지휘하시었다는것이 아니겠
습니까.

저는 그때 다시금 온몸으로 느
꼈습니다.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이 과연
어떻게 지켜지고있는가를 더욱더
뚜렷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한몸을 바쳐서라도!
바로 그것이였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조
국은 곧 사랑하는 인민 그자체
였습니다.

다시는 우리 인민의 머리위에
핵구름을 들이칠수 없게, 다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뜨거운
인민애, 조국애의 심장에서 정의
의 핵보검이 만리대공에 솟구치
고 그것이 범화되는 사변적인 기
적이 일어났것이 아니겠습니까.

작기에 당시 일본사회계의 한
인사는 《조선의 군사적행동은
미국의 핵선제공격전략으로부터
자기 나라와 인민을 끝내 지키
겠다는 의지를 담은것이라고 생

각한다.
...11월 19일에 조선중앙통신이
제재한 사진은 사랑하는 후대들
의 미래를, 전체 조선인민들의 생
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것이였다.

여기에는 응당 재일조선인들도
포함되어있을것이다.》라고 하였
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내 조국의 하
늘을 어지럽히려는 악성병마의 먹
장구름도 당해낼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은 존재!
이것이 조국에서 또 한차례의
전쟁과도 같았던 방역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더
욱더 억척으로 새겨진 인민의 존
재였습니다.

일본 사이다마대학의 한 명예교
수는 《세계적으로 (COVID-19)
가 확대되는 속에서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김정은총비서의 신념
과 그를 구현한 조선로동당의
방침이 구체화되고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장새남과 소해금의 부드러운
음색이 하나로 조화되어 조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더해주
는 불후의 고전명작 《사랑가》의
선율...
청높은 맑은 목소리로 우리 민
족의 정서와 생활감정이 숨배인
민요 《그때뵈는 처녀》를 불러
다나 아오모리현의 상공을 날아갔
다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심었다.
실제로는 상공 1 000km의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정부는 긴급경보를 발
령해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
다. 일본상공을 날아가고있는것
은 조선의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
의 전투기들이다. ...》라고 하였
습니다.

《이 공연은 번영하는 공화국
의 모습을 보여주는것과도 같았
다.》
《공연 마지막에 농악무가 있
었는데 민족의 풍년을 그대로 표
현하고있다는것이었다.》
어려서부터 무용을 무척 좋아
하였다고 하는 49살 난 동포녀성
은 《조국의 하늘을 그리며 희망
의 노래를 펼치리라는 공연주제
에 맞게 모든 종목이 잘 선정되었
다. 공연을 관람하니 참으로 기
뻐다.》고 하면서 무용수들을 축
하해주었습니다.

우리의 공연을 보고 조선민족
의 한 성원이라는 자부심을 새겨
안은 동포들의 마음속고백과 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뜨거운
인민애, 조국애의 심장에서 정의
의 핵보검이 만리대공에 솟구치
고 그것이 범화되는 사변적인 기
적이 일어났것이 아니겠습니까.

작기에 당시 일본사회계의 한
인사는 《조선의 군사적행동은
미국의 핵선제공격전략으로부터
자기 나라와 인민을 끝내 지키
겠다는 의지를 담은것이라고 생

수령, 당, 인민의 일체화 그리
고 인민자신의 자각적인 행동이
없으면 최대의 방위위기를 극복
하지 못했것이다.》라고 하였습
니다.

단 91일.
서방세계가 이해할수 없는 세
계보건의사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
났습니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정녕 무심히 불수 없는 그 하
늘의 높이는 누구도 견줄수 없는
인민의 무상한 존엄과 영광의 높
이이며 그 하늘의 푸르름은 끝없
이 맑은 내 조국의 창창함입니다.

아 은혜로운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의 정든 하늘 안고
살리라

노래는 영원히 푸른 내 조국의
하늘을 펼쳐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끝없는 효모의 메
아리, 위인칭송의 찬가가 되어 도
표의 하늘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리 금강산가극단.
은혜로운 조국의 품이 없었다면
동포들에게 참된 민족의 넋을 심
어준 우리의 공연무대를 어찌 생
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지난해 9월 어느날 조선신보사
의 한 너기자가 저에게 이런 말
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에서 경루동과 송화거
리와 같은 인민의 호화주택이 련
이어 밀려서는데 대해 많은 일본
사람들이 경탄하며 한번 구경하
고싶다고 말하고있다. 가극단의
순회공연에 조국의 모습을 생동
하게 더 많이 담아 동포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는것이였습니다.

순회공연을 앞둔 때에 이 말
을 들은 저는 가슴을 쿵 하고
울리는 충격에 조용히 눈길을 들
어 내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았
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우리 조
국에 제재에 제재를 거듭하였지
만 자력으로 내달리는 내 나라의
맑은 하늘가에는 인민의 웃음소
리, 비약과 전변의 동음이 더 높
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국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
준 송화거리의 살림집과 경루동
의 호화주택구, 어려운 속에서
도 중단없이 진행되는 화성지구
지에서의 농촌문화주택건설, 김
책체첸련합기업소와 금성트락도
공장 등 경제부문들에서 일어나
는 기적의 성과들...
제가 지난해 여름에 이미전부
터 알고있던 한 일본인사와 이야
기를 나눈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자립적
민족경제로선에서 따라 꾸준히 경
제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인민대중
일주의를 내세우고 사회주의강국
을 향해 매진하고있는 조선에 진
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싶다.》고 하
였습니다.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국
가발전을 활력있게 밀고나가면서
자국의 국력을 최강으로 다지고
그속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
의 신화들을 련일 창조하고있는
사상초유라 할만한, 그것이 바로 내
조국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회공연을 알
둔 긴박한 속에서도 진행되는 조
국의 모습을 종목마다에 생동하
게 담아내기 위해 더욱 힘썼습
니다.

4인무 《홍겨운 새남소리》, 군
무 《북춤》 등 여러 종목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실현해나가고있는 조
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예술적화
폭으로 생동하게 재현하려는 우
리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의 고
심어린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있
습니다.

민속무용 《농악무》에서 상모
돌리기를 한 남성배우들은 기적
의 현실만을 펼쳐는 조국의 모습
을 고유하고 특색있는 민족무용
동작들에 담아 펼쳐보이기 위해
정말 많은 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형상한 종목들이 그대
로 동포들의 마음속에 조국의 모
습으로 새겨져 그토록 심금을 울
렸던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조선사람이다!
이것이 순회공연을 본 동포들
모두에게 소중히 간직된 마음이
었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은 열렬한 애록
과 효모로 이어져 수많은 동포들

《높은 령을 넘어가자》

정다운 동무여 높은 령 넘어
가자
지금은 고난과 시련도 많아
바람 세차고 길은 험해도
저 령을 넘어야 새 아침 온다
아깨걸고 넘어가자 손잡고 넘어
가자
...

도교순회공연의 절정을 이룬 남
성독창 《높은 령을 넘어가자》.
울고 울부짖는 성량과 부드러운
우먼선도 특색있는 음색으로 왕
년의 시절 노래 《내 마음 팔지
않으리》를 비롯한 대중가요들을
시원하게 잘 불러 동포들의 사랑
을 받는 인민배우 리영수가수사
부른 이 노래는 시작부터 관객의
심금을 틀어잡았습니다.

랑만적이고 열렬한 곡조에 맞
추어 손뼉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관객의 열렬한 호응으로
장내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
습니다.

동포들은 저저마다 《이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참으로 기뻐다. 령
일에 대한 희망과 힘이 솟구쳐올
랐다.》고 말하며 훌륭한 공연을
펼친 우리 가극단성원들에게 감사
의 인사를 보내어왔습니다.

총련조직과 동포대중의 단합된
힘으로 맞다든 고난을 이겨낸 긍
지와 자부심, 령일에 대한 신심과
력판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광경
이 펼쳐질수 있었겠습니까.

말그대로 생기와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우리 동포사회의 밝은
미래상이 펼쳐진 공연마당이었
습니다.
그대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눈
앞에는 도교순회공연이 있기 며
칠전에 진행된 《우리 민족연단
2022》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해마다 제일본조선청년상공회가
주최하여온 민족연단은 지난해에
조선대학교에서 총련일군들과 각
계각층의 동포들 2 000여명이 참
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
습니다.

속에서 《지금 조선의 국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로 낮과 밤이 따로없이 급속히
상승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국가
건설을 다그치는 조국의 모습이
안겨오는것만 같아 크게 감동했
다.》는 칭송의 목소리들이 련일
울려나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각계의 일본인
사들과 시민들도 《공연을 보는
동안 우아한 조선예술의 세계
에 폭 빠져다. 참으로 조선민족
은 문화예술에 특별한 재능이 있
는가싶다. 앞으로 조선 그리고 재
일동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친
근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내년에도
꼭 관람하겠다.》고 말하면서
우리 가극단의 공연성과를 축하
해주었습니다.

이런 순회공연은 세계의 이목
을 집중시키며 더욱더 아득한
높이에 올라선 사회주의조국의
발전상을 예술적화폭으로 실감
있게 보여주어 일본 각지의 수
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최강의
힘을 지닌 강대한 조국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
고 공화국의 위상을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한 조국찬가의 마당이
었습니다.

《높은 령을 넘어가자》

청년상공회의 한해사업을 총화
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과 결의
가 피력되는 의의가 큰 민족연
단이지만 지난해에 진행된 연단
에 대한 동포들의 기대는 남달
랐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을 받아안고 처음으로
조선연 연단이기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참가자들의 열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출연자들의 토론은 각이했지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철창
조운동》을 더한층 고조시킬 모두
의 의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이날 더욱 인상깊었던것은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조국노래 《조선
청년행진곡》을 열정에 넘쳐 대
창하는 우리 새세대 동포청년들
의 장한 모습이였습니다.

하나의 뜻과 정으로 더 굳건히
봉착지는 우리 총련과 제일동포
들의 모습.
우리 노래, 우리 춤, 우리 장
단으로 흥성이며 2022년에도 활
기찬 전진의 길을 걸은 우리 총
련과 동포사회의 약동하는 모습
이였습니다.

도교순회공연장에서 또다시 재
현된 동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금 조국의
고마움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
습니다.

지나해의 첫아침에 우리 총련
과 제일동포들에게 뜻깊은 새해
축전을 보내주시고 세상에 없는
사랑의 법전인 해외동포연의우호
법을 채택하도록 해주신데 이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담
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5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에 보내
주신 사랑의 서한은 그대로 총련
부흥의 새시대를 여는 력사의 리
정표, 강성할 동포사회의 밝은 앞

날을 그려줄 설계도였습니다.
사랑과 정을 다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품이 있어 우리 동포들은 지
난해에 튼튼한 고난과 시련속
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신심
과 용기에 넘쳐 전진의 보폭을 크
게 내짚을수 있었습니다.

《동포들을 위하여 밀사복무하
자!》는 구호를 들고 화목하고
유족한 동포사회를 위하여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상부상조의
미풍을 발휘하면서 민족권리를
지키고 확대하는 투쟁에 힘과 마
음을 합치였습니다.

그 나날에 수많은 지부와 분
회, 단체, 사업체들이 애국애족
의 믿음직한 성들로 하나하나 튼
튼히 다져졌으며 그속에서 우리
총련과 제일동포들은 따뜻한 정
으로 더 굳게 봉치였습니다.

언제나 조국을 마음에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 열어주시신 부흥
의 활로따라 달려오며 남다른
궁지를 새겨안은 우리 동포들이
있기에 펼쳐는 노래춤은 그토록
흥겨웠으며 레일을 향해갈 열
정과 의지 또한 그토록 강렬한
것입니다.

높은 령을 넘어가자!
걸어갈 앞길에 험한 령 막아서
도 우리의 노래, 우리의 춤, 우
리의 장단을 높이 울리며 부흥의
새시대를 마중가자!

강대한 내 조국을 바라보며 또
한해를 달려온 우리 동포들이 새
해의 려명을 맞이하며 다시금 굳
혀안은 결심이린듯 노래는 여
의 하늘가에 힘있게 울려 퍼졌습
니다.

...
우리 가는 이 한길은 애국의
오직 한길
태양만을 따르는 한길이어라

참으로 보람찬던 지난해를 보
내면서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더
욱더 든든히 세워진 기둥이 있
습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은 누
구도 견줄수 없는 강대한 내 조
국의 힘이며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면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
고 보다 휘황한 부흥의 레일이
반드시 온다는 드높지 않는 신
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
에게 보내주신 서한에서 위대한
사상과 혈연의 정으로 굳게 봉
친 동포들의 진함없는 힘은 총
련과 제일조선인운동의 영원한
승리적담보이라고 가르쳐주시
었습니다.

우리들은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여는 근본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
음을 불변의 진리로 새기고 애국
애국사업을 즐기차게, 려동적으
로 벌려 총련과 제일조선인운동의 새
로운 전진기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공화국
의 창건 7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전적 70돐이 되는 뜻깊은 새
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
은 위대한 내 조국의 영원무궁한
번영과 강성총련의 밝은 앞날을 위
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서부터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
합니다.

총련 금강산가극단 단장
김정수



아이들의 얼굴에 비끼 창창한 앞날과 암담한 전도



밝아오는 조국땅의 노을빛으로 붉게 타는 벵타이를 펼칠 날리는 소년단원들, 지난 해말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를 성대히 진행한 궁지에 이어 희망찬 설날 아버지님들의 따뜻한 품에 안겨 기념사진을 찍고 사랑의 선물을 한가득 받아안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보배동자들이 더 큰 행복을 마중하며 기쁨에 겨워있다.

꿈 많은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년전 노래소리에 무궁번영할 강성조선의 찬란년미가 휘황히 밝아온다.

새해의 첫 기쁨에서 만복의 꿈을 꾸는 꽃봉오리들의 눈부신 미소를 축하하느라 지나온 한해의 잊지 못할 나날들이 감회깊게 돌이켜진다. 공화국의 70주년사상 가장 엄숙한 도전에 부단했던 2022년.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침공이 극도로 달하고 악성비루스

의 류입이라는 돌발적인 보건 위기가 조성된데 이어 혹심한 자연재해 등 사상초유의 시련이 겹겹이 들이닥친 참으로 준엄한 해였다.

엄혹한 세월의 광풍속에서 후대들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사랑은 열배, 백배로 뜨거워졌다.

2021년말에 있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책임지는 사업을 영원한 국책으로 제시하여 세상을 놀래켰다.

후대들을 위한 정사로 2022년의 시작을 연 공화국의 한해는 실로 력사에 전 무후무한 후대사랑의 전설로 가득차 있었다.

2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었다.

오직 공화국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후대사랑의 이 법전은 모든 나라 어린이들에

라나고있다.

몇 안되는 아이들을 위해 통학버스, 통학열차, 《어머니》호 통학배가 정상운영되고 전국의 원아들에게 친부모도 대신 못할 다정한 정이 담긴 따스한 겨울옷들이 차례진 현실은 어려울수록 나라의 찬란재부도, 억만자루의 품도 아낌없이 기울이고 그 무한한 힘으로 찬란한 미래를 당겨가야 하는 위대한 어머니사랑이 낳은 가슴뜨거운 화폭이었다.

다사다난했던 이 한해에 더 예쁘게, 더 튼튼하게, 더 씩씩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라고 세상이 보란듯이 자랑을 터뜨리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마움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이 나날에 평양산원에서 523번째로 세상생이 태어난 희소식은 아이들의 천국이 더욱 흥할 정조로 온 나라에 기쁨을 더해주었다.

정월에서 12월까지 온 한해 세상 비길데 없는 후대사랑속에 나 어린 왕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더 높이 울려 퍼져 2022년은 진정한 아이들의 행복의 한해였다.

하기에 세계는 이렇게 격찬하였다.

《조선의 육아정책은 이 나라가 어린이보육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 모든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거창한 사업들을 실행해나가고 있는 조선에서는 지금 한판판의 자금이 그 어느때보다 귀중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영양식품과 장사업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이 기아와 병마

에 시달리고 끊임없는 분쟁의 희생물이 되어 한창 배우고 뛰놀아야 할 나이에 어른들과 함께 정처없는 피난길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조선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 권력쟁탈과 사리사욕을 앞세운 시장배들의 싸움이 그치지 않은 남조선의 2022년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한해, 눈물의 한해였다.

지난해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벌어진 경쟁마당에 나선 후보들중에 아동들의 권리를 거론한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 민심 낚이용 《장미빛공약》속에 20, 30대의 지지표 확보를 위한 헛공약은 내뿜을망정 거권을 가질수 없는 아동들 따위는 애당초 안중에 두지 않고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운운한 남조선의 정치간담배들이.

이런 시장배들의 의면과 방치로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아 할 아이들이 오히려 폭행과 학대의 대상으로 되었다.

아동학대피해자가 수천 건에 2배로 증가하는 속에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고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한 경악스러운 사건을 비롯하여 수다 많은 폐렴환자들이 사회적 질 저하의 운명은 이렇듯

아동학대사건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정도이다. 특히 아동학대를 한 가해자의 82.1%가 부모들이라는 사실은 인륜도, 사량도, 장그리 말살된 암흑의 남조선사회, 무참하게 짓밟히는 남조선어린이들의 불행한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뿐이 아니다.

교육분야에 《시장권리》를 받아들였던 이전 보수 《정권》의 《교육정책》을 부활시키려는 현 보수당국의 행위로 하여 사교육이 또 다시 성행하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곧 생존경쟁으로 되는것이 남조선의 험악한 교육실태이다.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책정으로 막바지에서 조물들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에 부쳐 체순으로 자신들을 죽이고 목숨을 끊는 부모들이 늘어났다.

더우기 순진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온갖 사회악에 물들어 폭력과 범죄의 길에 들어선 산 날마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10대이들속에서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 《유전유리, 무전불리》가 《합법화》된 색은 세상에서 개, 돼지로 전락한 나 찰라리 죽음으로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가난한 집 자녀들의 운명은 이렇듯

비참하다.

차별과 학대, 방치와 죽음으로 이어진 2022년은 실로 남조선아동들에게 있어서 지경도록 긴긴 악몽의 한해, 지옥에서의 한해였다.

오죽했으면 나 어린 학생들이 《절망적인 윤석열(정부)를 이대로 두겠습니까?》, 《윤석열퇴진초봉에 함께 합시다!》는 격문을 내걸고 살을 에이는 추위를 무릅쓰며 초봉투쟁에 떨쳐나섰는가.

나라의 장래를 보려하는 어린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행복의 절정에서 밝게 웃는 공화국의 꽃봉오리들과 절망의 나락에서 시들어가 는 남조선의 어린이들.

마치도 낮과 밤처럼 너무도 대조적인 두 위로를 무릅쓰며 한 두 제도의 미래가 그대로 비껴갔다.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목청껏 자랑하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와 더불어 전도양양한 공화국의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하지만 황금만능과 약육강식, 극도의 개인주의가 만연된 사회에서 버림받은 애 어린 인생처럼 남조선의 레일은 스티커가 되었다.

창창한 앞날과 암담한 전도, 이것이 공화국과 남조선의 판이한 두 현실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말마친 취재길에서였다. 하늘에서 내렸나 땅속에서 솟았나 모래바람 불어 치던 연포지구의 허허벌판에 눈부러가 모자라게 펼쳐진 세계 굴지의 대규모 온실농장이 들어선 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연포 온실농장이 준공된 소식을 신문과 TV로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었던 실지 와 보니 그야말로 신비경이었다.

아니, 그 표현도 적합치 않았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과연 무엇이라 하겠는가.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말그대로 바다였다.

무릇 어떤 물건이 넘쳐나도록 매우 많은 현상을 바다에 비유한다.

아득히 펼쳐진 공룡식 푸른 온실지붕들은 마치도 장쾌한 바다가 일으키는 수천수만의 물결인듯... 금시무시로는 아침햇빛이 그 물결들마다 눈부시게 내려앉으니 그 모양은 그대로 해돋이를 맞는 거대한 바다를 연상시켰다.

결음마다 경탄을 터뜨린 온실안에 들어서니 이렇듯마다 무성하게 자라는 푸르른 남새들과 온갖 열매들이 나뉠기쁘게 하였다. 준공을 한지 얼마 안되는 온실농장이라고

민기 어렵게 가지마다 주렁주렁 사과추출들, 포글포글 무리져 빨갭게 맺힌 싱싱한 도마도들, 파아란 일남새들... 밝은 흰눈이 강산같이 쌓여있건만 엄동설한에도 이곳에는 화창한 봄기운과 풍성한 가을결실만 있는 듯싶었다.

나의 입가에서는 절로 탄성이 터져올랐다.

이 순간 함경남도인민들을 위해 대규모온실농장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고가 한가슴에 그득히 차올라 눈곱이 젖어음을 금할수 없었다.

몸소 바다바람 세찬 여기 연포지구에 나오시어 온실러전도 잡아주시고 착공의 첫 삽을 뜨시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아래 온실은 대규모온실농장이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지금도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장에서 가없이 펼쳐진 온실바다를 부감하시며 인민들에게 사철 싱싱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된것이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른다.

진정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오신 불멸의 령정속에서 태어난 무수한 인민사랑의 바다들은 그 얼마나 많은가.

결정아래 사파바다, 황금이삭 물결치는 벼바다, 희한한 물고기바다, 황해남도에 펼쳐진 농기계바다, 증명명의 남새바다... 어찌 그뿐이랴.

마시레스크장과 양덕은천 문화휴양지, 미림소마구락부와 중앙동물원 등 비롯한 문화정서생활지들과 송화거리와 보통강기술에 펼쳐진 황홀한 인민의 보금자리들이여 전국의 시, 군들에 일떠선 농촌발전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살림집들... 가슴이 벅차올라 미처 다잡지 못할 인민사랑의 응결체들이다.

인민을 위하시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눈부신 행복의 결정체들을 생각이나 할수 있나.

문득 아침해빛을 안고 눈부러 아득히 펼쳐진 온실바다가 나에게 속삭이는듯싶었다. 대규모의 이 연포온실농장도 그 크나큰 사랑의 바다에서 하나의 작은 물방울일 뿐이라고...

하나하나의 물방울들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시작은 있어도 그걸 모르는 위대한 어머니사랑속에 매일엔 또 얼마나 무수한 행복의 창조물들이 이 땅우에 일떠설 것인가.

터져오르는 나의 격정에 화답하듯 무수한 해살들을 받아 눈부시게 희한한 온실바다가 파도치며 설레이는듯싶었다.

어제보다 더 눈부신 우리의 오늘, 오늘보다 더 부강해질 내 조국의 레일이 보여오는 여기 온실의 바다가 고마움에 젖어든 내 마음에 보답의 파도를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게 했다. 쉬임없이, 쉬임없이... 어찌 그뿐이랴.



공화국인민들은 밤을 서경의 시간이라고 한다.

하루의 벅찬 창조와 숨결을 되새기고 매일의 더 큰 행복과 번영의 기적을 그려보는 밤.

지난해의 첫 기쁨에서부터 송년의 마감까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찬란아침달들의 가슴마다에 공지는 차려지고 더 밝은 매일, 더 눈부신 미래를 띠고 가고 마중가는 회려했던 새해에도 잠 못드는 밤이다.

지난해에 적대세력의 압박공세도, 곁싸이는 자연의 광란도, 건국이래의 대동란인 최악의 보건위기도 쳐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공화국인민이다.

이는 결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절로 마련된 승리가 아니다.

인민을 하늘로 여기고 인민을 위해 떨사복무하는 어머니상, 우리들 사회주의가 안겨준 승리와 영광이며 애국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귀중한 열매들이다.

과학기술로 더 큰 승리를 담보하겠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장과 나의 이야기—

새로운 새해년도 투쟁에 펼쳐나선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났다. 기지는 함경남도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새해를 축하한다. 지난해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축에 각종 학술도론회와 연구도론회, 과학기술발표회들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고 본다.

황영남: 인민경제 주요부문에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고강도 광범한 토론을 거쳐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방도를 찾는다는 학술토론회, 연구도론회, 과학기술발표회는 매우 효과

교환회, 전국전력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도론회, 전국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도론회, 전국철도운수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도론회, 전국화학재로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학술도론회, 목석선추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학술도론회 등 여러 부문의 과학기술발표회들이 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풀고 과학기술적담보를 주는 데 한몫 단단히 하였다.

이밖에 제5차 전국교육과학연구도론회, 전국기계공업부문 연구도론회, 전국산업부문 연구도론회, 제2차 전국중부부문 학술도론회 등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대중의 지적적혜와 힘을 발양시키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하기에 과학기술발표회 및



왜 그렇지 않았는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2022년은 그야말로 암흑의 날과 달이었다.

무지무능한 윤석열역도의 친제, 반서민정책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극악한 민생이 허덕이다 지칠때도 지쳐 쓰러져 절망속에 보낸

윤석열역도에게는 더이상 기대할것 없었다. 새해에는 두 번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

분노의 초물이 반항의 해볼로 거세치게 타버리며 압후의 남조선사회를 불사르고 있다.

만은 한지책이나 너무도 편이한 두 사회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다. 공화국인민들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사랑, 억만금을 쏟아부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말끔히 가져주는 한

없은 은정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 그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의 피와 땀을 애국의 불길로 승화시키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간다.

그러나 남조선의 각계층은 1%의 권력자, 가진자들을 위해 99%가 죽어야 하는 저주로운 사회를 불사르기 위해 생존의 초물, 투쟁의 불길을 추켜들었다.

사랑과 충정으로 잠들 줄 모르는 밤, 분노와 항거로 불라는 밤!

이것이아말로 극렬될수 없는 두 사회의 극적인 운명이요 극명한 대조이다.

깊어지는 생각안고 저녁거리를 거니는 나의 귀전에 어디선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사회주의찬가, 인민사랑의 송가가 끝없이 메아리치는 인민의 락원, 잠들 줄 모르는 공화국의 밤은 바로 휘황한 레일을 부르고있다.

박진홍

대결병에 걸린자들의 말기증상

남조선에서 새해부터 전쟁대결...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북이 언제라도 성동격서시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윤석열(정권)은 친미골... 《정권의 불구덩이로 달려드는 윤석열(정부)의 위험한 절주를 멈춰세우자!》...

더 활활 타오를 반미, 반윤석열투쟁의 불길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서울 풍산에 있는 《대통령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반도에 전쟁위기를 열고 《조선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것은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세계가 벌어졌다》...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퇴진초불투쟁》에 떨쳐나... 이과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퇴진초불투쟁이 하나의 정치문화로 자리잡고있다》...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역적무리들

윤석열역도가 로동, 교육, 년금의 《3대개혁》에 대해... 《3대개혁》을 떠들었지만 남조선 각계에서는 그에 대한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들이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체로 파쇼화, 반동화하는것... 《3대개혁》의 진면모가 바로 이런것이기때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역도의 《개혁》나발을 비난조소하고 반대배격하고있는것이다.



피로 얼룩진 역사를 철대로 지워버릴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2022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를 삭제한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층으로부터 뒤흔을 맞고있다.

것으로 파쇼독재의 후예임을 자인하였고 파쇼독재정치를 부활시켜온 남조선말을 민주주의 불모지, 인권의 무덤, 민주개혁세력의 《피의 목욕탕》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소망과 원망

근로대중의 한탄의 목소리, 고통과 절망의 비명소리가 울려나온 사회가 있다. 그러나 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2022년 온 한해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속에 몰아넣고도 모든 책임을 전 《정부》나 야권들한테 전가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라면

역적패당의 친일사대매국 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윤석열역적패당이 남조선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일제강점정 용공해자들에게 일본전범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각계층에서 단죄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입이 더러워진다

새해가 밝아왔지만 남조선의 《민심광장》에는 새해가 오지 않았습다. 해가 바뀐 첫날부터 민생은 외면하고 《복에 핵이 있다》고 떨지 말라》며 《응징》과 《보복》을 떠드는 윤석열역도의 대결광기로 불안에 싸인 민심.

《민심광장》의 이야기계주

《민심광장》의 이야기계주... 《민심광장》이 윤석열역도에 대한 울분과 규탄으로 끓고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해. 허세를 부리지 말아》

《왜?! 과학을 무시하면 되나. 내가 한번 해볼가》 《왜?! 과학을 무시하면 되나. 내가 한번 해볼가》 《왜?! 과학을 무시하면 되나. 내가 한번 해볼가》

새해의 경축분위기를 돋구어준 눈조각 풍경

❖ 삼지연 시에서 ❖



새해를 맞이한 삼지연시의 거리마다 눈조각풍경이 펼쳐져 경축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국가부흥과 변혁적발전의 보다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게 될 희망찬 새해를 반영한 눈조각들은 설경속에 묻힌 삼지연시의 도로양옆에 조화롭게 펼쳐졌다.

특히 《축하 새해 2023》이라고 쓰여진 눈조각장식은 시련에 찬 지난해를 마감한 전진과 눈부신 성과로 빛나는 새해의 자긍심과 환희로 밝아온 부흥변영의 새 아침을 잘 보여주었다.

활짝 피어난 아름다운 꽃

들과 꽃바구니를 형상한 눈조각장식물에는 지나온 한해 탁월한 령도로 국가부흥발전의 확실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가장 뜨거운 축원의 인사와 함께 비상히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갈 온 나라 인민들의 드높은 신심과 불같은 결기가 담겨져 있다.

이곳 인민들은 희망찬 새해를 반영한 이채로운 눈조각을 배경으로 새해의 뜻깊은 기념사진도 남기었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배우 태을민



오늘도 사람들은 배우 태을민이라고 하면 이름보다 《놀부》라는 호칭으로 부르곤 한다.

미군의 군화발밑에 신음하는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공화국을 동경하여 오던 그는 1948년 8월 뜻을 같이하는 연극인들과 함께 공화국의 품에 안기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그가 처음으로 출연한 영화는 예술영화 《내 고향》이었다. 이 영화에서 그는 맑은 지주역을 손색없이 수행하여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그가 더욱 유명해지게 된 것은 예술영화 《홍부전》에 출연해서부터였다. 영화에서 인정이 깊고 심술많은 놀부역은 맡은 그는 영형상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입에 틀이

조선연극사와 영화사에 깊이 새겨진 배우라는 이름은 이렇게 생겨났다.

1916년 11월 만주국의 아들로 태어난 태을민은 어려서부터 갖은 설움속에 피어난 꽃을 피우는 강요당했고 잔뼈가 굵어서는 시계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태을민은 19살때 서울중앙극장 대본필사공으로 들어갔으며 1년후에 연극배우가 되었다. 하지만 나라없는 만주국민의 수난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해방후 극단배우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 해방민세를 목청껏 부르던 그는 해방된 조선에서 새롭게 태어난 백성이라는 뜻에서 김종배라는 이름을 태을민으로 고치었다.

를 물고 연기를 하였는가 하면 제비의 다리를 우정 쥐어 놓고 실로 동여매는 동작만도 수십번이나 반복하여 익히었다고 한다.

그는 예술영화 《랑반전》에서도 자기의 개성을 특색 있게 잘 살리었다. 똥똥한 몸으로 랑반홍배를 내는 역형상, 섬세하면서 특이한 목소리는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그의 매력이었다.

이밖에도 그는 《그들은 대지우에 서있다》와 《금화의 비밀》을 비롯한 많은 영화와 연극에서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공화국에서는 태을민에게 1959년에 공훈배우칭호를, 1962년에는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하였다.

본사기자 리철민

온 나라에 질어가는 (봄향기)

신의주화장품공장이라고 하면 《봄향기》화장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단위, 인민들이 즐겨 찾는 질좋은 화장품을 많이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공장에서는 피부보호화장품, 분장용화장품, 머리칼화장품, 세척용화장품 등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생산하고있는데 사람들속에서 그 수요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에 있는 제1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에서도 《봄향기》화장품은 인민들로부터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지금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점들로는 《봄향기》화장품에 심취된 사람들이 너도나도 찾아오고있다.

《이제는 (봄향기) 화장품에 정이 폭 들었습니다.》 《(봄향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그옥한 향기 풍기는 《봄향기》화장품을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속에는 며칠 있으면 아들의 결혼식이 있게 된다며 며느리에게 결혼기념품으로 《봄향기》화장품을 주기 위해 찾아왔다는 너인도 있고 안해의 생일날에 《봄향기》화장품을 기념으로 주려고 찾아온 중년남성,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봄향기》화장품을 드리겠다는 대학생 청년들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지향한다.

공화국의 여성들을 비롯하여 인민들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

어갈 지향을 안고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인민들이 사랑하는 《봄향기》화장품의 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김혜영 신의주화장품공장 지배인은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화장품공업에서 패권을 취하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봄향기》화장품이 100년, 2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 조국을 상징하는 명제품으로 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얼마전 신의주화장품공장 봄향기연구소가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었다.

나노재료연구실, 머리칼화장품연구실을 비롯한 20여개의 연구실, 실험실, 분석실

들과 과학기술발전실 등이 꾸려진 연구소에는 80여개 수백대의 현대적인 실험 및 분석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연구소가 일떠섬으로써 화장품개발과 도안 및 설계, 생산공정의 현대화, 제품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의 미적정서와 시대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화장품공업을 세



민속놀이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제기를 멀리뜨리지 않고 차는것을 겨루는 어린이놀이이다.

제기는 엽전이나 동그란 쇠조각 같은데 짐승털, 헝겊 등을 솔처럼 달아서 만들었다.

제기차기에는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과 집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개별적으로는 한발로 땅을 딛고서서 다른쪽 발의 안쪽 모서리로 편속 차올리기, 한쪽발만 땅을 딛고 다른쪽 발은 땅을 딛지 않고 차다가 제기를 높이 올려차서 머리카락 등에 얹기, 제기를 차면서 일정한 거리를 돌아오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승부를 겨루었다.

집체적으로는 제기차기방법에는 우와 같은 방법을 편을 갈라하는외에

판단력과 그에 적응한 명중력을 키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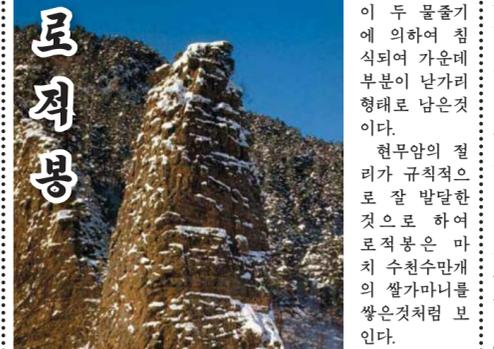
특히 어린이들로 하여금 추위앞에 기가 죽지 않고 활기있게 놀면서 몸튼튼히 단련하게 하는 좋은 놀이이다.

제기차기는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기질과 요구에 맞는 재미있는 놀이인것으로 하여 오랜 옛날부터 오늘까지 전해져내려왔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인현부암층이 두 물줄기에 의하여 침식되어 가운데 부분이 날카리 형태로 남은것이다.

현부암의 절리가 규칙적으로 잘 발달한것으로 하여 로적봉은 마치 수천수만개의 쌀가마니를 쌓은것처럼 보인다.

로적봉의 상대적 높이는 50m이고 그 생김새는 원추모양이다.

기묘한 모양을 가지고 서있는 로적봉은

우리 선조들에 의해 창조되어 오를까지 전하여지는 민족고전유산산물유네는 《국조기략》에 있다.

이 책에는 조선봉건왕조 시기에 있었던 여러 사건, 사실들의 진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조기략》의 저자와 편찬년대, 편찬목적 등은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책에 수록된 사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종이 왕으로 있던

년 시기에 편찬되었음을 알수 있다.

《국조기략》은 11권 5책으로 되어있으며 사료들을 내편, 외편, 속편, 별편 이렇게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민족고전 《국조기략》

제 4개의 편으로 묶어 서술하였다.

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통치계급내부에서 벌어진 권력싸움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사실들 그리고

조선봉건왕조시기 가장 규모가 컸던 전쟁들을 취급하면서 그 교훈과 후과 등을 언급하였다.

《국조기략》은 저자의 계급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이 반영되어있으나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력사적사건사실들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료적가치를 가지는 민족고전유산의 하나로 된다.

본사기자

지방비밀질문화유산

지방비밀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돌칸한증료법에 개성지방에서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전통적인 민간료법으로서 화장식으로 쌓은 궁룡식(천정을 활동이나 반달모양으로 둥글게 한것)으로 된 도가니안에서 땀을 내며 치료하는 한증료법이다.

도가니안에서 버져 등을 태워 100~150℃정도의 높은 온도를 보양하고 재를 끓여내 다음 그속에서 땀을 내는 돌칸한증료법은 땀을 통하여 몸에 해로운 여러가지 중독성물질들과 대사산물들을 배설시키고 혈순환과 여러 장기들의 기능을 높여주며 관절염, 악성감기, 비만증, 피부병과 순환기계통, 신경계통의 각종 질병들의 치료와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재를 끓여내고 바다

에 칸 약효가 큰 나무가지에서 생겨나는 증기속에 사람의 몸에 좋은 음이온이 많이 포함되어있는데 높은 온도에서 사람들의 습기와 피부의 땀구멍마다 폭 배어들면서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준다.

또한 도가니축조에 쓰인 화강석에는 여러가지 광물질성분들과 수소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높은 온도에서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한다.

고려시기에 개성의 어느한 도자기구이러의 도공들이 뜨거운 도가니안에서 땀을 내고 개울물에 뛰어들어 온갖 잡병들을 고쳤다는 민간전설로부터 유래된 이 돌칸한증료법은 오늘날에도 그 독특한 효능으로 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널리 이용되고있다.

본사기자

송도특식 설야적의 유래 (2)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김씨가 음식점에서 일한지 보름쯤 지난 어느날이었다.

한낮에 왜장들의 두목이라 하는 똥보늬가 말라깽이 통역놈을 뒤에 달고 음식점에 들어닥쳤다.

그날만 나라나면 더 잘 보이려고 애쓰는 음식점주인은 값진 술상을 차려내 하였다.

김씨는 독한 술을 황아리 채로 내놓았다.

김씨가 구워내는 산적에 맞들인 왜장놈은 사발로 술을 퍼마시고는 비틀거리며 혀꼬부라진 소리를 췌었다.

그놈의 말을 통역놈이 음식점주인에게 조선말로 번지였다.

부엌에서 산적을 굽는 김씨는 통역놈의 말을 농칠새라 귀를 바짝 기울였다.

들어보니 하루이틀만에 장단고을의 석주원집에 머물러 있는 의병부대가 몰살될것이니 두고보라는 수작이었다.

김씨는 통일이 서늘하였다.

빨리 이 소식을 의병들에게 전해야 한다.

어머니에게서 걱정을 받은 찬봉은 즉시 의병대를 찾아내달렸다.

적정이 제때에 가닿지 못한 다면 의병들이 잘못될수 있다. ...

김씨는 가슴을 조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들

이 무사히 성을 빠져나갔는지, 제발 다른 변이 없어야겠는데...

며칠 지나 김씨가 음식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찬봉이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저녁밥을 짓고 있었다.

속이 새까맣서 아들을 기다렸던 김씨는 너무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변이 날뻔했어요.》

찬봉은 신이 나서 이야기 하였다.

찬봉이 종주먹을 쥐고 석주원집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자정무렵이었다.

원집은 오고가는 행인들이 목어가는 속박소인데 석주마에 그런 집이 있었다.

그 집에 백여명의 의병들이 묵고있었다.

장단나무에 진을 친 왜놈들을 기습하려 떠나간 의병대의 배후를 지키려고 떨어진 의병들이었다.

왜놈들이 석주원집으로 달려온다는 말을 들은 의병들은 곧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적군을 물리치지 못하면 의병대장이 이끌고간 주력기 위해 빠질수 있다는것을 잘 아는 그들은 어떻게 싸울것인가 의논을 하였다.

의병은 적고 왜놈들은 많으니 신뢰한 피를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의병들이 어서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찬봉은 한바탕 싸울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의병들이 의논하는것을 지켜보았다.

헌데 신통한 수가 나지 않는지 의병들은 의논을 거듭하는것이였다.

이때 찬봉은 자기 생각을 비치였다.

지내보니 왜놈들이란 간특한데 여간 의심이 많은 족속이 아니다. 바로 그 약점을 이용하면 감쪽같이 왜놈들을 속여넘길수 있지 않겠는가. ...

의병들은 찬봉의 피를 지지해주었다.

하여 그밤으로 많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진지에 세워놓았다.

날이 밝자 늑은이로 변장한 몇몇 의병들이 마을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아래에서 장기도 두고 낮잠도 자는척 하였다.

밤새껏 달려온 왜놈들은 샘뽕뽕 높고있는 로인들을 보자 두려워 의심이 들었다.

석주마을은 위쪽은듯 잠잠한데 늑은이 몇사람만이 한가롭게 논다는것은 무슨 조

간이 있다는것이 아닌가. 틀림없이 의병들이 대군으로 북병을 치고 아님보살을 하는것이 분명하다.

적장은 곧 날과람있는 병졸 몇을 불러 의병들이 진을 친듯한 산으로 은밀히 기어들어가 정황을 살펴보게 하였다.

그놈들은 곧 마을뒤에 있는 울창한 수림속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진을 치고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병이 대군으로 진을 치

장하다. 장해.》

《아니오이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번이나 할 일이오이까?》

그날 밤 김씨와 찬봉은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정진에 날이 밝는줄도 몰랐다. ...

새월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았다. 어느새 여름이 가고 가을도 가서 북새바람이 터져나왔다.

김씨와 그의 아들 찬봉은 여전히 북송아름음식집에 발

드나드는 찬봉이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은 점점 좁아드는것같았다.

찬봉이 음식점에 얼마나 수고수직 해오고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겠는데 밤에는 밤대로 늑들의 개질을 하는 부자집들에 개교장을 던져달라고 하고 왜놈들의 군량고에 불을 지르기도 하니 그러다 붙잡히면 어떤단 말인가.

제가 요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것이였다.

선안에 쌓이 떨어져 음식점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도 멀건 보리죽 한사발이 고작이었다.

한창 먹을 나이에 멀건 보리죽 한사발로는 배에 기별도 안갈것이다.

김씨가 아들생각에 근심을 놓지 못하고있는데 왜놈들이 음식점을 찾아왔다.

그들은 잔뜩 산적이며 술을 치며고나서 수일내로 왜장 사이포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대덕산으로 쳐들어갈것이라고, 그러면 의병대는 전멸이라고 희미한 수작을 늘어놓았다.

그들의 수작을 엿들은 김씨는 일찍이 여삼추를갔다. 이 걱정을 아들에게 알려야겠는데 찬봉은 아직 산에서 돌아오지 않고있었다.

해질무렵에야 찬봉이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음식점에 들어왔다.

김씨는 나무짐으로 들어가 아들에게 걱정을 알려주었다.

찬봉은 태연한척 휘파람까지 불어대며 지계를 지고 음식점을 나갔다.

